



Cambridge IGCSE™

FIRST LANGUAGE KOREAN**0521/11**

Paper 1 Reading

May/June 2021

INSERT

2 hours

INFORMATION

-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Do not write your answers** on the insert.

유의사항

-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 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 이 첨부 시험지 공간에 표시를 하거나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첨부 시험지에는 **채점될 최종 답안을 쓰지 마십시오.**



This document has **8** pages. Any blank pages are indicated.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다음은 이해미의 <천하의 불효녀 심청>중 일부분입니다.

심청전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의 고전 소설 중 하나로 어머니 없이 가난한 장님의 몸으로 홀로 자신을 키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심청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공양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위해 자기 몸을 팔아 제물로 인당수라는 물에 빠진다. 그러나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된 심청은 왕과 결혼하게 된다. 왕비가 된 심청이를 만나자 반가움과 놀라움에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 이 작품은 판소리, 영화 등으로도 재구성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효행의 미덕을 알려 왔다. 5

반면 <심청이 무슨 효녀야??>라는 책이 있다. 책의 저자는 어렸을 적 별생각 없이 들었던 심청전 이야기를 부모가 되고 다시 보니 아이가 심청전을 읽고 효도에 대해 잘못 이해할까 봐 염려되었다고 했다. 당연하다. 자식의 행복이 천하제일의 효도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으니 남아 있는 아버지에게는 딸의 행동이 천하제일의 불효가 아닌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 동화였으니까 심청은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고, 아버지가 딸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리지만 이 이야기를 뉴스 기사로 접한다면 엽기적인 일이 된다. 우리가 동화나 드라마로 받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심청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효도라는 것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10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무언가를 해야 효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효도의 본질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자식이 용돈을 건네거나 자식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도 선물을 해 온다면 그것을 받은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나의 사회 초년생 시절에 나름대로 수입이 생겼다면 부모님께 하던 작은 선물이 이내 아빠가 주시는 내 용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랬던 것이구나 하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 15 20

그러면 나부터 제대로 하려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잠시 효도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은 과연 나의 부모님이 살면서 힘들었을 때마다 나를 등한시했던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때는 센스가 필요하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고 곱게 자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자. 살면서 힘듦 없이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는가. 다들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그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만일 내가 먹고살 만한 때를 찾아 효도하겠다고 기다린다면 그 효도의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부모님에게 작은 용돈 봉투라도 건네자는 말은 부모님이 내 용돈 없이 살기 부족할까 봐 걱정되어서만이 아닌, 그래도 내 자식이 어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며 부모에게 용돈 봉투를 내밀만큼 여유 있었다는 뜻이며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자식이 준 용돈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차곡차곡 모았다는 부모님의 일화가 많은 것도 이 까닭이다. 기쁜 마음으로 자식이 주는 봉투를 받지만, 봉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25 30

같은 맥락으로 힘든 것을 부모 모르게 하는 것 또한 효도다. 아빠는 대가족 만형이었는데, 동생들이 군대에 갈 때마다 앓혀 놓고 당부했다. 절대 휴가 나와서 부모님께 군대가 힘들다는 말하면 안 되고, 요즘 군대는 밥도 잘 나오고 기합도 안 받아서 생활하기 편하다고 말하라고 강조했다. 자식이 굶은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까 해서 한 말이었다. 착한 삼촌들은 아빠의 35

말을 잘 따랐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군대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이라고 진짜로 믿으셨다! 80년대, 3년 꼬박 복역했던 시절이었고, 위계질서와 제반 시설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열악했던 시절이었다.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면 자연스레 푸념이 나올 법도 한 나이인데, 아빠도 20대였으면서 어쩔 그렇게 빨리 철이 들었던 걸까.

40

얼마 전 결혼한 친구가 엄마한테 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본인은 엄마랑 들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결혼하고 더 엄마와 가까워졌다는데 그건 결혼하고 더 엄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주는 엄마가 한없이 고맙다고 한다. 엄마가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한다. 나는 웬지 친구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얼마 전에는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고 영영 울며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한풀이했다고 한다. 하소연을 실컷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해주었다. 아침부터 우는 딸의 전화를 받은 엄마의 하루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딸의 전화벨 소리에 엄마는 과연 반갑고 기쁘기만 할까? 이런 자식이 의외로 적지 않으며 그들은 이것이 불효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부모님과 스스럼없으니 이러지’라며 자랑스러워한다?!

45

부모는 자식의 탄생과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마음 졸여 하며 자신이 낳은 생명체에 대한 부담을 평생 짊어지는 사람이다. 자식과 관련된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해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 부모님이다. 한시도 자식에 대한 걱정에 마음 놓은 적 없이 말이다. 효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효도하려면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심청이 이야기에서 건질 것이 있다면, 쓰러진 심청이의 아버지를 반면교사¹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50

¹반면교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Text B

다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효’에 대한 글의 일부입니다.

‘효’란 자식과 부모의 관계, 특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개념으로 그 본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효란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는 근본이다. 자식이 부모의 뜻에 따르고 정성으로 모셔서 부모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지만, 자식이 스스로 인격을 완성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에 효가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는 근본이라는 것이다. 둘째, 효는 사랑과 화합의 정신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따르면 부모는 편안하고 즐거워져 가정엔 화목의 기운이 가득 찰 것이며, 그 결과 가정을 단위로 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온화해질 것이다. 즉 모든 행동의 뿌리인 효는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정신인 동시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근본인 것이다. 셋째,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다. 5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며 효도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음식, 옷, 그리고 집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옛날 이야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를 모시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없는 것으로서 필요하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이상적인 효도로 여겨졌다. 즉, 부모의 요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들어드려야 한다. 둘째,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로, 이는 부모가 자식을 온갖 희생을 다해서 길렀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는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서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 ‘영원한 빛’인 것이다. 셋째, 부모의 뜻에 무조건 따르고 그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안 된다. 부모와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효의 개념은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매우 힘든, 이상적인 도덕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다. 10 15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가 삶의 편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인 효의 정신은 실낱같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효 사상은 현대 사회의 자유 평등 사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오해이다. 왜냐하면, 똑바로 이해된 전통적 가치와 서양의 현대적 가치 사이에는 반대되는 면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는 효를 실천하는 방법에서 잘 나타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첫째로, 자식은 몸을 다치지 않으며 자신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그중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식의 건강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에 힘써 부모의 걱정을 적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인 것이다. 특히 우리의 몸과 생명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나쁜 행동으로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부모를 모시려면 가까이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즉, 음식을 잘 대접하고 잠자리와 옷을 편안하게 해 드려 부모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랑하면서 공경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는 사랑과 공경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예의를 지켜 존경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의 정이 통하는 관계이지만, 그로 인하여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부모의 소망과 뜻을 받아들여 항상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즉,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평생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모의 가장 절실한 소망은 자식의 심신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한 자식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자식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여 사회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려 부모를 빛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단, 부모의 잘못된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바로잡는다. 25 30 35 40

효도를 말할 때, 대개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효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반드시 완곡한 말씨와 얼굴색으로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 자식이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보답한다. 자식이 부모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 의무의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적인 관계이다. 효가 쌍방관계라고 해서 주고받기식의 교환관계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거의 절대적으로 자연적인 것처럼 자식의 부모 섬김도 무조건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이다. 즉, 효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지, 부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45

최근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효의 정신과 현대적인 의미,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50

BLANK PAGE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ambridgeinternational.org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tself is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